Stage 4. Wet Paint – More Stories B

Storytelling by Extended Stories?

더 길고 자세한 스토리 버전으로, 좀더 높은 레벨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언어 노출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상상력을 증진 시켜 줍니다.

페이지 마다 읽은 내용에 관한 사실과 의견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ver/Introduction

Have you read the story called 'Come in'? In that story, Dad is painting the front door of the new house. In this story, he is painting the back door. But things don't go smoothly. Painting the back door is more trouble than Dad bargained for.

Come in'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나요? 그 이야기에서는 아빠가 새집 대문을 페인트칠해요. 이 이야기에서는 아빠는 뒷문을 페인트칠해요. 그러나 일이 순조롭지가 않네요. 뒷문을 칠하는 일은 아빠가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많아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happened in the story called 'Come in'?
'Come in'이라는 이야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Why mustn't anyone touch wet paint?
왜 누구든지 마르지 않은 페인트에 손대면 안되나요?

Page 1

There was a great deal of work to do in the new house. Mum and Dad never seemed to stop working. One day Dad was painting the back door, when sufddenly he got quite cross. You see, the children were outside playing with a ball. 'Keep that ball well away from here,' said Dad sternly. 'Mind this wet paint. I don't want any marks on it. Look what happened to the front door.'

새집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아빠와 엄마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뒷문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보세요, 아이들이 밖에서 공을 가지고 놀

고 있어요. '공이 이쪽 근처로는 아예 오지도 않게 하렴.' 아빠가 딱딱하게 말했어요. '이 마르지 않은 페인트를 신경쓰라구. 여기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대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라.'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did happen to the front door?
대문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What do you think might happen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Page 2/3

The children went in for a drink. Oh dear, Floppy wanted to come in, too. He gave a bark. Then he jumped up. Before Dad could stop him he put his paws on the paint. There were paw marks and scratch marks all down Dad's new paint. 'Oh no!' said Dad. 'I didn't think of telling Floppy to mind the wet paint. Now I'll have to paint that bit of the door all over again.

아이들은 물을 마시러 들어왔어요. 오, 저런. Floppy도 들어오고 싶어하네요. 그가 짖어요. 그리고는 뛰어올랐어요. 아빠가 그를 말리기도 전에 그의 발이 페인트에 닿았어요. 아빠가 새로 칠한 문에 발자국과 긁힌 자국이 여기저기 생겼네요. '오, 안돼!' 아빠가 말했어요. '내가 Floppy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잊었구나. 이제 저 문을 다시 다 칠해야 해.'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y did Floppy want to go inside?
Floppy는 왜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했나요?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next?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Page 4/5

Dad painted the door again. 'Everyone keep clear of the wet paint,' he said. Biff and Chip were playing outside again. They were playing football. 'I've told you before!' Dad said to the twins. 'Go and play football somewhere else. I don't want a ball on my wet paint.' Just as he

said this, Biff kicked a ball. She meant to kick it gently to Chip, but instead, she kicked it harder than she meant to, and the ball hit the door. 'Oh no!' said Dad.

아빠는 문을 다시 칠했어요. '모두들 마르지 않은 페인트에서 떨어져있어라.' 아빠가 말했어요. Biff와 Chip은 다시 밖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축구를 했어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빠가 쌍둥이에게 말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축구를 하란 말이다. 내가 칠한 곳에 공이 날라오는 것을 난 원치 않는단 말이야.' 아빠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Biff가 공을 찼어요. Biff는 Chip에게 살짝 공을 차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의도했던 것보다 세게 차서 공은 문에 부딪쳤어요. '오, 안돼!' 아빠가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will Dad have to do now?
아빠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What will Biff say to Dad now that she has kicked the ball against his wet paint?
아빠가 칠한 문에 공을 찼으니 이제 Biff는 아빠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Page 6/7

Dad painted the door again. 'Now this time, everyone,' he said, 'just keep away from my wet paint.' The trouble is, some things are hard to remember. Kipper always ran towards the back door and pushed it open with both hands. This time he did not remember that Dad had just said. 'Mind my wet paint.' Kipper pushed the door and he got paint on his hands.

아빠는 문을 다시 칠했어요. '자, 이제 모두들.' 아빠가 말했어요. '이제 내가 칠한 문에서 다 떨어져.' 문제는 어떤 것들은 기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Kipper는 항상 뒷문으로 달려와 두 손으로 문을 밀어요. 이번에 그는 아빠가 '문을 조심하렴.' 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Kipper는 손으로 문을 밀었고, 손에는 페인트가 묻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are Biff and Chip saying in this picture?
Biff와 Chip은 그림 속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What do you think Dad said?
아빠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Page 8/9

Dad wasn't pleased. Im fact, Dad was fed up. He had painted the door three times already. He painted the door again. 'What a job!' said Dad. Kipper was sorry. 'I didn't mean to forget the paint was still wet,' he said. Mum bought out a cup of coffee. 'Never mind,' she said. 'I think we all know by now that the wet paint on the back door is wet. So I'm sure this os the last time Dad will have to paint it.'

아빠는 화가 났어요. 사실, 아빠는 지쳤어요. 아빠는 벌써 세 번이나 문을 칠했답니다. 아빠는 문을 다시 칠했어요. '이것도 일이군.' 아빠가 말했어요. Kipper는 미안했어요. '문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엄마는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뒷문의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번이 아빠가 마지막으로 페인트칠을 하시는 것일 거야.'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Do you think Mum was right?
엄마의 말이 맞을까요?

What do you think might happen to the door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Page 10/11

Biff and Chip put the tent up. They pretended they were camping, so they took out some old rugs and pillows and put them inside the tent. After a while, Biff and Chip had a pillow fight. At the first they had the fight inside the tent, but there wasn't room to get a good swing with the pillows, so they went outside. 'Thwack, smack, wallop!' shouted Biff as she hit Chip. But then the pillow split open. 'Oh no!' said Biff.

Biff와 Chip은 텐트를 쳤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캠핑은 한다고 생각하며 돗자리와 베개를 꺼내 텐트안에 넣었어요. 잠시 후, Biff와 Chip은 베개싸움을 했어요. 처음에는 텐트 안에서 했지만 베개를 휘두르기에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찰싹, 찰싹 퍽!' Chip을 때리면서 Biff가 외쳤어요. 그러나 그때, 베개가 터졌어요. '오, 안돼!' Biff가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Have you ever had a pillow fight?

베개싸움을 한 적이 있나요?

What is going to happen now?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Page 12/13

A great shower of tiny feathers flew out of the pillow. The feathers floated and swirled about in the air. Some feathers landed on Floppy and settled on his face. Others drifted towards the house. Then the wind blew. It blew the feathers everywhere. 'Oh no!' said Chip. He remembered the back door. 'Wet paint!' he said.

작은 깃털들이 베개 밖으로 나와 날아다녔어요. 깃털들은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소용돌이쳤어요. 몇몇 깃털은 Floppy의 얼굴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다른 것들은 집 쪽으로 날라갔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깃털들은 사방으로 날라갔어요. '오, 안돼!' Chip이 말했어요. 그는 뒷문이 생각났어요. '아직 마르지 않았어!' 그가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will happen when the feather blow on to the back door?
깃털이 뒷문으로 날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Make the same expression that Biff and Chip have on their faces.
Biff와 Chip의 표정과 똑같은 표정을 지어보세요.

Page 14/15

Biff and Chip looked at the back door, but there was no wet paint. The door had gone. The back door had been taken down. Dad had put up an old door in its place. 'What a relief!' said Biff. 'I thought Dad's paint was going to be covered in feathers.' 'I don't know what he'd say if he had to paint the door all over again,' said Chip.

Biff와 Chip은 뒷문을 바라봤지만, 그곳에는 마르지 않은 페인트가 없었어요. 문이 사라졌어요. 아빠가 뒷문을 떼어내고 오래된 문을 달아놨어요. '다행이다.' Biff가 말했어요. '난 아빠가 칠한 것이 깃털로 뒤덮이는 줄 알았어.' '난 아빠가 문을 다 다시 칠하게 됐다면 뭐라고 하셨을지 모르겠다.' Chip이 말했어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 has Dad gone?
아빠는 무엇을 했나요?

What else is happening in this picture?
그림에서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Page 16

Biff and Chip ran to find Dad. Dad was pleased with himself. The back door was inside. Dad had painted it indoors where no harm could come to it. 'It's safe here,' said Dad. Oh dear! The door wasn't as safe as he thought!

Biff와 Chip은 아빠를 찾으러 달려갔어요. 아빠는 스스로 만족스러워했어요. 뒷문은 실내에 있었어요. 아빠는 아무 위험도 없는 실내에서 페인트칠을 했어요. '여긴 안전해.' 아빠가 말했어요. 오, 저런! 문은 아빠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네요!

<그림을 보며 물어보세요>

What's happening to the door?
문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What is Dad going to say now?
아빠는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